



미 증시, 저가매수세 유입되며 4 거래일 만에 반등

미국 증시 리뷰

25 일(월) 미국 증시는 미 연방정부 셧다운 우려, 고유가 지속, 미국채 10 년물 금리 4.5% 돌파에 하락 출발했으나, 빅테크 중심으로 저가매수세 유입, 아마존의 AI 투자 결정 소식에 힘입어 4 거래일만에 반등. (다우 +0.13%, S&P500 +0.4%, 나스닥 +0.45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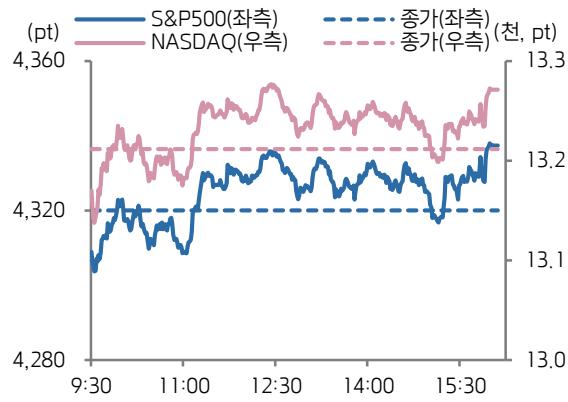
오스tan 굴스비 시카고 연은 총재는 지난 FOMC에서 연준위원들이 대부분 내년에도 금리가 높게 유지될 것을 시사했으며 이는 시장에서 생각해 온 시간보다 좀 더 긴 시간이라고 언급. "인플레이션이 우리가 원하는 수준보다 높게 유지될 위험이 제일 큰 위험"이라며 "목표치로 인플레이션을 낮춰야 하며,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"고 언급.

미 의회가 내년 정부 예산 관련 법안 12 개를 통과하지 못하면 미 정부는 10 월 1 일부터 셧다운에 돌입. 트럼프 전대통령을 중심으로 공화당 내 강경파의 반대로 12 개 법안 중 처리된 법안은 없는 상황. 일각에서는 2013 년과 2018~2019 년 정부 폐쇄에 따른 경제성장을 타격은 0.1~0.3%포인트였다고 분석. 또한, 셧다운 돌입 시 정부 노동자 80 만 명이 강제 무급 휴가에 들어가게 되고 이때 줄어드는 소비는 통계에 잡히지 않는 간접적인 타격이 예상된다고 언급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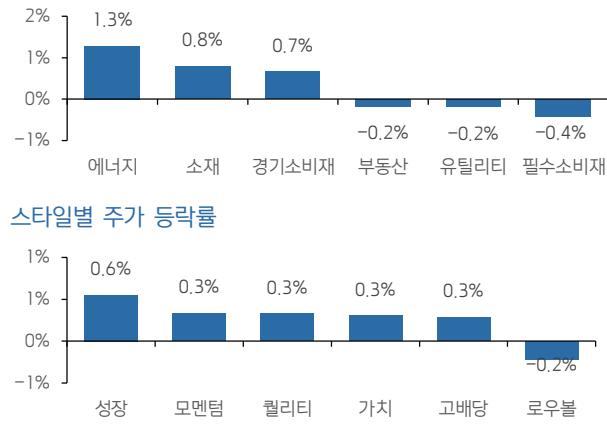
9 월 독일 Ifo 기업환경지수는 85.7(예상 85.2, 전월 85.8) 기록하며 전월대비 하락. 현재 경기에 대한 평가지수는 89.0에서 88.7로 하락했으나 미래 경기에 대한 기대지수는 82.7에서 82.9로 소폭 개선. 8 월 시카고 연은 국가활동지수는 -0.16(예상 0.10, 전월 0.07), 9 월 달러스연은 제조업 활동지수는 -17.1(예상 -14.0, 전월 -17.2) 기록하며 부진.

업종별로 에너지(+1.3%), 소재(+0.8%), 경기소비재(+0.7%) 강세, 필수소비재(-0.4%), 유틸리티(-0.2%), 부동산(-0.2%) 약세. 미국 작가조합 WGA 는 현지시간 24 일 사용자 단체인 영화·TV 제작자연합(AMPTP)와 150 일 만에 잠정 합의에 도달, 이에 AMPTP 예속해있는 디즈니(-0.3%), 파라마운트(0.16%), 워너브라더스 디스커버리(-3.96%) 등 반등을 시도했으나 결국 하락 전환 마감. 아마존(1.67%)이 생성형 AI 개발 스타트업인 앤트로픽에 최대 40 억달러(약 5 조 3500 억 원) 투자 발표, MS·구글에 이어 AI에 본격 투자. 앤트로픽은 개발에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대부분을 아마존의 클라우드 서비스인 AWS로 옮기게 되며, 아마존이 챗봇이나 기타 앱을 구동하는데 쓰이는 생성형 AI에 필요한 반도체를 개발하는데도 참여할 예정.

S&P500 & NASDAQ 일중 차트



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



자료: Bloomberg, 키움증권

자료: Bloomberg, 키움증권

주요 지수					
주식시장			외환시장		
지수	가격	변화	지수	가격	변화
코스피	2,495.76	-0.49%	USD/KRW	1,336.35	-0.02%
코스피 200	331.58	-0.13%	달러 지수	105.95	+0.35%
코스닥	839.17	-2.12%	EUR/USD	1.06	+0.01%
코스닥 150	1,320.86	-2.14%	USD/CNH	7.32	+0%
S&P500	4,337.44	+0.4%	USD/JPY	148.81	-0.05%
NASDAQ	13,271.32	+0.45%	채권시장		
다우	34,006.88	+0.13%	국고채 3년	3.881	+1.5bp
VIX	16.90	-1.74%	국고채 10년	4.015	+2bp
러셀 2000	1,784.24	+0.44%	미국 국채 2년	5.125	+1.5bp
필라. 반도체	3,389.46	+0.72%	미국 국채 10년	4.533	+10bp
다우 운송	15,101.42	+0.76%	미국 국채 30년	4.652	+12.8bp
유럽, ETFs			원자재 시장		
Eurostoxx50	4,167.37	-0.95%	WTI	89.84	+0.18%
MSCI 전세계 지수	662.62	-0.08%	브렌트유	93.29	+0.02%
MSCI DM 지수	2,879.79	+0%	금	1935.1	-0.08%
MSCI EM 지수	957.41	-0.71%	은	23.15	-1.91%
MSCI 한국 ETF	60.62	-0.3%	구리	364.95	-0.44%

자료: Bloomberg, 키움증권, 한국 오전 6 시 30 분 기준



한국 증시 주요 체크 사항

한국 ETF 및 야간선물 동향

MSCI 한국 지수 ETF 는 0.3% 하락, MSCI 신흥국 ETF 는 0.44% 하락. 유렉스 야간선물은 0.12% 하락. NDF 달러/원 환율 1개월물은 1337.49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, 달러/원 환율은 1 원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.

1. 최근 급락에 따른 낙폭과대 인식성 매수세 유입 가능성
2. 아마존의 주가 강세가 국내 AI 관련주들에 미치는 영향
3. 코스피 200 일선 지지 여부

증시 코멘트 및 대응 전략

9 월 FOMC 전후로 바뀐 것은 “시장의 기대감 관리에 대한 연준의 전략 변화”에 있음. 상반기 중에 시장에서는 “연내 금리인하 기대감”이 형성되었고 이는 상반기 증시 랠리의 동력 중 하나였음. 하지만 연준은 잇따른 매파적인 발언과 6 월 FOMC 에서 점도표 상향조정을 하면서 금리인하 기대감을 후퇴시킴. 이후 여름 기간 중 시장에서는 “올해 긴축 중단 및 내년 금리인하 기대감”이 지배적인 분위기로 조성되면서 주가 또한 중립 수준의 흐름을 전개해 나가기도 했음. 그러나 연준은 9 월 FOMC 를 통해 내년까지 고금리 장기화 가능성을 예고하면서 그 기대감을 차단해버렸던 상황.

연준 입장에서는 인플레가 잡히고 있다는 추가 데이터를 확보하고 싶은 만큼, 최근처럼 시장의 정책 전환 기대감이 다시 커질 경우 과도한 위험자산 가격 상승 및 기대 인플레이션 상승 등의 부작용을 우려했던 것으로 보임. 향후에도 이들은 기대감 관리에 주력할 것이기에, 주식시장은 10 년물 금리 4.5% 이상의 환경에 직면할 수 있음. 다만, 1) 10 월 이후 발표되는 지표이 경기둔화, 인플레 하락 등 매파 스탠스를 강화시킬 만한 유인은 제공하지 않을 것이며, 2) 주가 측면에서 9 월 FOMC 충격을 기반으로 해오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함. 따라서, 연준발 악재로 인해 추가적인 조정이 출현하더라도 그 형태는 급락이 아닌 기간 조정에 그칠 것이라는 전제 하에 증시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게 적절.

전일 국내 증시는 9 월 FOMC 여진이 이어진 가운데 양 시장에서 2 차전지주들이 실적우려, 수급 부담 등으로 동반 급락세를 연출함에 따라 하락 마감(코스피 -0.5%, 코스닥 -2.1%).

금일에는 최근 주가 조정으로 인한 밸류에이션 매력 부각, 낙폭과대 인식 등에 따른 매수 유인이 상존한 가운데, AI 스타트업에 대한 40 억달러 신규투자로 강세를 보인 아마존(+1.7%) 이슈 등을 반영하면서 대형주, AI 관련주를 중심으로 반등에 나설 것으로 전망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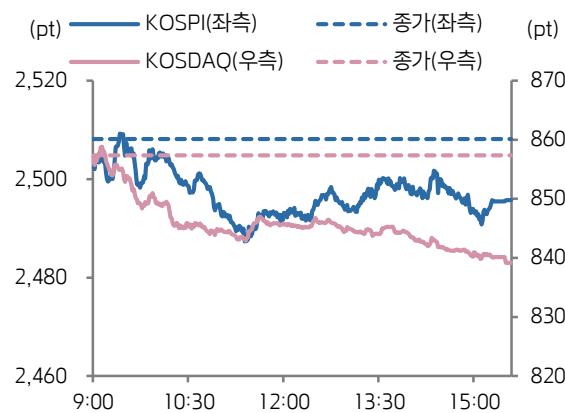
한편, 향후 국내 증시 흐름과 관련해 차트와 수급 관점에서 관전 포인트가 존재. 먼저 차트 상으로 코스피는 전일 종가가 2,495.7pt 를 기록함에 따라 중기추세선인 120 일선(2,537pt)을 이탈했으며, 장기 추세선인 200 일선(2,495pt)도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. 120 일선과 유사하게 지난 1년동안 200 일선을 이탈했던 사례는 3 월 중순 SVS 사태였고, 당시 증장기 상승 추세로 복귀할 수 있었던 주된 동인은 연준의 정책 전환 기대감이었음.

9 월 FOMC 를 거치면서 시장은 “고금리 장기화”라는 새로운 과제도 풀어나가야 한다는 점이 지난 3 월 사례와 차이가 나는 부분이긴 함. 이번에는 이른 시일 내에 추세를 회복하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불안이 직관적으로 들 수 있음. 하지만 3 월에 비해 증시 밸류에이션 매력이 높아졌다는 점을 감안해서 봐야함(3 월 코스피 PER 12.2 배 vs 현재 10.5 배). 최근 주가 조정이 과도한 성격이 있는 만큼, 현재 지수 레벨대에서 하방 지지력을 확보해 나갈 것으로 전망.

수급 측면에서도 외국인이 4 개월 연속 코스피 순매도를 기록했다는 점은(6~9 월 누적 금액 -5.0 조원), 본격적인 셀코리아라는 일차적인 판단을 해볼 수 있음. 그렇지만 순매도의 대부분이 2 차전지 업종이 포함된 칠강(-5.4 조원)이나 화학(-2.2 조원) 등이 차지하고 있으며, 코스피 방향성을 같이하는 반도체 등 전기전자(+2.1 조원), 자동차 등 운수장비(+1.5 조원) 업종에 대해서는 순매수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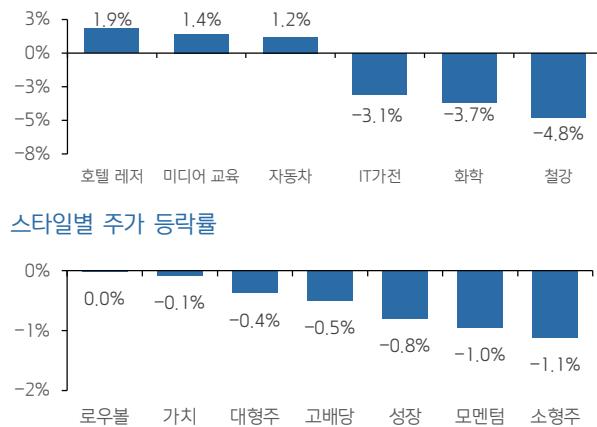
과거 외국인 셀코리아에는 후자에 해당하는 반도체 등 주력업종을 중심으로 전개됐지만, 현재는 그러한 셀 코리아 기조라고 보기 어려움. 또 후자의 업종은 한동안 낮아졌던 이익 전망 기대치도 개선되고 있는 만큼, 연후 전후로 증시 변동성 확대 시 전기전자, 운수장비 업종에 대한 비중 확대로 대응하는 것도 현 시점에서는 대안이라고 판단.

KOSPI & KOSDAQ 일중 차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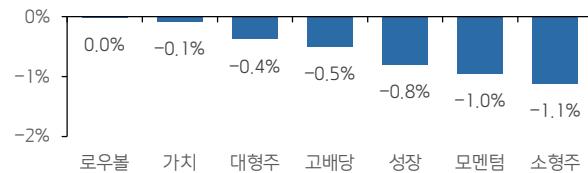


자료: Bloomberg, 키움증권

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



스타일별 주가 등락률



자료: Bloomberg, 키움증권

Compliance Notice

-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. -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,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.

고지사항

-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,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있고,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. -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, 유가증권의 종류, 종목,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이루어져야 하며,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제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. -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, 복제, 전시, 배포, 전송, 편집, 번역,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.